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식객' 주인공 김래원

음식문화 다큐 내레이션

요리 소재 드라마 '식객'에 출연해 인기를 모은 탤런트 김래원이 이번에는 음식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을 맡는다.

김래원은 7일, 14일 밤 9시55분에 1, 2부로 나눠 방송하는 MBC TV 특별기획 '스파이스 루트(Spice Route)'에서 해설을 맡았다.

스파이스 루트는 동남아시아 밀림에서 인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향신료 중계 무역로를 가리키는 말로 근대 초까지 동아시아와 유럽 문명을 연결하는 중요 통로였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태국의 왕실요리, 헝가리 고추 농가, 이탈리아 고문서실, 중국 신장성 사막 등 세계 10개국에서 펼쳐지는 맛의 향연을 다룬다. HD 고화질 영상으로 각국의 '스파이스 음식'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아줌마 파워

박미선·이경실·황신혜 등 거침없는 인기몰이

방송가에 아줌마 파워가 빛난다. 공중파TV를 비롯해 케이블TV, 라디오 등 매체를 불문하고 게스트는 물론 MC까지 맡아 시청률을 높이는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 이들 아줌마들은 거침없는 언행과 내용 없는 편안함을 무기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개그우먼 박미선과 이경실은 예능프로그램에서 섭외 1순위 아줌마 스타로 꼽힌다. 오락·교양물에서 만연한 같은 푸근함으로 남자 MC들과는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각종 프로그램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미선은 '일요일 일요일 밤에-세바퀴'(MBC)의 MC를 맡아 아줌마 스타들과 함께 특유의 아줌마 수다를 풀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랑허어로'(MBC), '해피투게더 시즌 3'(KBS) 등 예능프로그램은 물론 '러브인 아시아'(KBS), '있다! 없다?'(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SBS) 등 교양프로그램과 SBS 라디오 '우리집 라디오' DJ로 종합무진 활약하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경실 역시 박미선과 함께 '세바퀴'에 출연, '재혼 마일리지' 등의 푹탄발언을 하며 강력한 입심을 자랑하고 있다. 이경실은 또 케이블 채널 스토리온의 '스토리쇼-이 사람을 고발합니다'에서 재치있는 입담과 연원이 묻어나는 진행을 선보이며 시즌 2의 메인MC까지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올해 초 열린 '2008 SBS 시무식'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라디오 프로그램 '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SBS)로 '2007 하반기 작품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순악질 여사'로 80년대 큰 인

기를 끌었던 개그우먼 김미화는 지난 2003년부터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맡아 진행자로써의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

김미화는 딱딱한 시사문제를 아줌마 스타일로 쉽게 접근해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23일에는 5주년 특집 방송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특별 대담을 직접 진행했다. 이밖에 '미화의 U'(SBS), 'TV 책을 말한다'(KBS), 'TV 사랑을 싣고'(KBS) 등 각종 교양 프로그램의 전문 MC로도 활약했으며, 최근에는 6인조 라틴 재즈 밴드 '프리즘'을 결성해 가수로 활동영역을 넓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미모의 아줌마 스타들도 가세를 하고 있다. 모델 출신의 변정수는 주부 생활과 패션을 묶어 케이블 채널 올리브 TV '올리브쇼'의 메인 MC로 활약 중이다. 미시족의 대표인 변정수는 패션을 통해 아줌마뿐만 아니라 20~30대 여성 시청자에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녀스타 황신혜는 케이블채널 tvN 토크쇼 '더 킴'에서 단독 MC로 브라운관에 4년 만에 돌아왔다. 황신혜는 지난 25일에는 '무한도전'(MBC) 매니저특집 '은 에이-매니저가 돼 바라' 편에 전진이 '더 킴'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잠깐 얼굴을 내비쳤다. 한편 '더 킴'은 오는 11월 새로운 포맷으로 문을 열기 위해 잠시 중단된 상황이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진행과 중년층 시청자에게 주는 친근함을 내세운 아줌마 스타들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이경실〉



〈김미화〉



〈황신혜〉



〈변정수〉

'독한' 요부들 SBS 새 월화드라마 '아내의 유혹' 3일 첫 선

또 다시 '독한' 드라마가 출현했다. '애자 언니 민자' 후속으로 3일 첫선을 보이는 SBS TV 새 일일극 '아내의 유혹'(극본 김순옥, 연출 오세강)이다.

드라마는 친구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여자가 180도 돌변, 자신을 버렸던 남편을 파멸시키기 위해 요부로 변신해 다시 남편을 유혹하는 이야기다. 아내가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은 다시 자기 앞에 나타난 여자가 죽은 아내와 외모는 닮았지만 전혀 다른 성격과 스타일이라 다른 인물

이라고 착각한다.

주인공 은재 역을 맡아 3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 장서희는 "같은 복수극이라 '인어아가씨'의 아리영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은재와 아리영은 다르다"면서 "아리영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처음부터 복수를 준비했지만, 은재는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무너지면서 돌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예전에는 아리영 이미지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

제는 아리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은재는 극중에서 1인2역을 하는 독특한 역이라 연기하는 게 즐겁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 드라마에 출연하고, 최근 1년간은 휴식을 가졌던 그는 "쉬면서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웠고, 건강도 회복해 지금은 '인어아가씨'를 시작할 때의 상태를 회복했다"며 웃었다.

'아내의 유혹'에는 김서형, 이재황, 오영실, 금보라, 김용건 등이 출연한다. /연습스



11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아내가 결혼했다	41만6천914	51만5천464
2	이글 아이	27만6천857	176만5천910
3	바디 오브 리이즈	21만2천106	24만8천889
4	맘미미아	9만3천84	421만8천732
5	미쓰 홍당무	8만3천693	43만6천54
6	화피	6만9천531	8만1천751
7	그 남자의 책 198쪽	4만7천244	5만8천424
8	공작부인: 세기의 스캔들	3만4천310	20만9천583
9	데스 레이스	2만5천796	13만5천189
10	언더 더 셰임 문	1만2천974	5만928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나는 내운명	KBS1	28.5
2	일요일이 좋다 1부	SBS	27.5
3	예전의 동쪽	MBC	27.3
4	황금어장	MBC	22.8
5	내사랑 금지옥엽	KBS2	21.2
6	무한도전	MBC	19.1
7	베토벤 바이러스	MBC	18.8
8	타짜	SBS	17.0
9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SBS	16.8
10	가문의 영광	SBS	16.6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목	장르
1	아이언 맨	SF
2	강철중-공공의 적1-1	드라마
3	인크레더블 월드	액션
4	고사: 피의 중간고사	공포
5	적벽대전: 거대한 전쟁의 시작	액션
6	눈에는 눈 이에는	액션
7	섹스 앤 더 시티	로맨스
8	점퍼	SF
9	추격자	스릴러
10	남스 아일랜드	판타지

(자료제공:오픈과 버금)

가요

순위	제목	가수
1	노바디	원더걸스
2	어쩌다	브라운아이드걸스
3	1분초	예지영이
4	러브 스토리	비
5	미쳤어	손담비
6	주문	동방신기
7	히루히루	빅뱅
8	둘리나오	소녀시대 태연
9	천국	빅뱅
10	레이너룸	비

(자료제공:멜론)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62 / 010-722-0100

010-2530-9999